

News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 막판 고심... "가계부채案 내주 발표"

뉴스1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서도 DSR 규제 검토 중이나 서민 실수요층 반발로 고민 중...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다음주로 밀리는 분위기
금융위원장, 28일 주요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회동... 주요 내용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 방안

금감원, 금융사 가계대출 집중적으로 본다

뉴시스

금감원 관계자, 향후 검사방향에 대해 "가계부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 언급... 11월 초 위드 코로나도 다가오며 최소화했던 현장검사를 다시 확대할 움직임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다음 달부터 본격적... 부문검사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예정... 한국은행은 최근 신한은행과 케이뱅크의 공동 부문검사를 요청

주담대 금리, 신용대출 뛰어넘었다... 대출 역전현상 왜?

머니S

올 1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받는 채무자 중 43.9%는 신용대출도 쓰고 있는 이중 채무자... 2012년 2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여러 종류 대출 받아 이자 부담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는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 예고에 대출 금리 상승 직격탄 우려

이자 올린 시중銀 정기에금 뭉칫돈

매일일보

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정기에금으로 머니무브... 주식 등 투자 심리 악화 및 경기 전망 불확실성 짙어지는데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반영된 결과
지난 15일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의 정기에금 잔액은 640조 3,443억 원으로 집계... 지난달 말 대비 7조 9,209억원 늘어난 액수로 5월 이후 최대 증가치

백신접종 늘고 추석 연휴 이어져... 9월 車보험 손해율 상승

파이낸셜뉴스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전월대비 평균 5% 증가... 손해율이 줄어든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 1곳으로 0.5%p 감소한 82.6% 기록
손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보험사는 MG손해보험, 전월비 9.9%p 증가한 100.6% 기록... 추석연휴 교통량 증가와 백신접종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

농협생명, '디지털 플랫폼' 출사표...헬스케어 경쟁 치열

데일리안

NH농협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운영업체 선정 돌입... 선정 대상 업체는 최근 5년 이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실적 보유한 곳
27일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를 거쳐 업체 선정...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플랫폼 개발 착수... 5개월 간 개발을 거쳐 내년 4월에는 서비스 오픈할 계획

하락 베풀었던 기관이 달라졌다... '곱버스 팔고 레버리지 담고'

뉴스1

코스피 지수의 3000선 회복에 기관투자자 순매수 역할... 기관 중 금융투자가 1조 2,302억원 사들여 수급 주도... 투신도 1,650억원 순매수
기관은 특히 ETF 시장에서 지수 상승에 베풀는 모습... KODEX레버리지 ETF를 1,566억원 순매수... 삼성전자에 이어 순매수 2위에 해당하는 규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일부터 시행

매일경제

금융위원회,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 4월 개정돼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권유, 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제공해야... 사모펀드체계도 투자자 기준으로 개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